10.15686/fkl.2024..62.312

김명순 문학의 기독교 언어 전유

서욱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약속의 말씀과 의심의 글쓰기
2.1 탄실이의 이상한 기도
2.2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과 맹세 불가능성
3 ‘지극히 작은 자’와 공동체
3.1 선지자 어조 전유하기
3.2 나라와 도적: 불가능한 공동체, 가능한 생활
4 성스러움의 여성형 욕망하기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김명순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여성 작가의 기독교 언어 전유 양상을 분석한 글이다. 김명순 문학에 나타난 성서 인용과 변주들은 한 작가가 절대성을 표방하는 언어를 거쳐 자기 언어를 찾는 과정의 사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지이다.

김명순을 포함하여 나혜석, 김일엽, 박화성, 이선희 등 근대 초기 여성 작가들의 상당수가 미션계 여학교에서 성서와 찬송가를 배웠지만 이후 이탈했으며, 텍스트에도 그러한 이탈의 흔적들을 남겼다 사실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1] 이때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살필 때 발생하기 쉬운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즉 내용적 측면에만 국한된 소재주의와 일방적인 영향사를 밝히는 데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독교를 말과 현실이 말의 주도 아래 일치하는 믿음을 가진 특별한 언어 체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를 언행일치를 중시하는 언어 체계로 볼 경우, 텍스트에 제시된 기독교적 소재를 모아 '기독교적 상상력'을 추출하여 문학과 종교를 분리하는 연구방법을 넘어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적 상상력 혹은 초월적 사유가 일으킨 텍스트 형식의 변화와 문학 개념의 생성에 초점"[2]을 맞추는 것이 요청된다.

사랑과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배신감이 성별 기표의

---

1 근대 여성 작가와 기독교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미영과 이경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미영은 남녀평등과 자아실현의 도구(나혜석), 신문명으로 들어가는 입구(김일엽), 다른 종교로 대체 가능한 내세관(김명순)으로 기독교와 신여성의 만남을 유형화하면서, 이들이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조선기독교의 가부장성, 기독교에 대한 작가의 피상적 이해, 여성해방론자로서 주체적 사고방식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경수는 근대 초기 여성시에 나타난 종교성과 여성성의 관련 양상을 돈호, 명령, 자기고백과 감상성과 같은 형식적 측면과도 연결하고, 모윤숙, 노천명, 1950-60년대 김남조, 홍윤숙, 이후 강은교, 고정희까지 이어지는 계보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2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68-95쪽, 이경수, 「근대 초기 여성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표상-나혜석·김명순·김일엽의 시에 나타난 종교성과 여성성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3, 한국비평문학회, 2009, 293-318쪽,

2 강동호, 「한국 근대문학과 세속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6, 6쪽.

불일치가 주는 위화감과 만날 때 작가는 기독교 언어를 상대화한다. 절대적인 텍스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감각과 달리 절대적인 텍스트를 상대화하고 있다는 감각은 반역과 자유의 쾌감과 닿아있지만 동시에 기댈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불안을 동반한다. 단 한 종류의 언어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에게서 새로운 말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을 찾아가는 두려움과 떨림의 과정이 나타난다. 기독교 언어 전유는 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서북 기독교가 민족의 개념과 상상을 감당할 표현과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족운동의 소명론을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 소명론을 부정하는 언어가 되기도 했"[3]다면, 조선교회의 여성 교인에게 기독교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별 편애를 동시에 감지하게 하는 언어이자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는 언어였을 수 있다. 이광수, 전영택, 김동인, 주요한 등의 서북 남성 문인들이 자신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권위를 더하기 위해 성서와 기독교의 언어를 전유했다면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이선희 등 여성 작가들은 이 권위와 상상력의 비대칭성에 대해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한번 더 전유한다.

따라서 김명순 문학의 기독교 언어 전유는 사랑을 약속하는 보편 표방적 언어 안에서 분열과 불일치를 겪은 작가가 통과한 문학의 창조적 행위와 진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작업은 김명순의 시, 소설, 수필에 나타난 성서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찾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때 상호텍스트성은 구절, 표현, 모티프, 이미지를 참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교 언어의 형식적 측면, 즉 기도, 예언, 회개 촉구(定罪), 귀 기울임(음성 요청) 등을 포함한다.

2 약속의 말씀과 의심의 글쓰기

2.1 탄실이의 이상한 기도

신여성 작가 연구에서 김명순은 나혜석, 김일엽의 '선구성'에 비해 가부장적 사회가 가한 폭력의 피해자성과 문학적 대응과 같은 '자전성'에 주목되어 왔다. 김명순은 1차 일본 유학 도중 이응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사건을 악의적

3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2014, 206쪽.

으로 다룬 신문기사와 저격성 '공개장'으로 인한 2차 가해로 작가 생애 내내 고통받았다.[4] 김명순 문학에 대한 자전적 접근은 작품들이 가진 짙은 자전성에서도 기인한다. 대표작인 「의심의 소녀」, 「도라다볼 때」, 「탄실이와 주영이」만 보아도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기생 출신 어머니를 둔 서녀이고, 주인공이 음란한 기질과 관련된 악소문으로 고통받는다.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김명순 문학 연구는 이러한 자전성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읽고자 한다. 반면 시의 경우 자학과 비탄을 토로하는 고립적 화자와 구원을 바라는 화자가 나란히 나타난다. 소설과 희곡에서조차 여성 인물들의 남성 의존, 자살로 귀결되는 죄의 내면화 등 김명순 문학을 여성 작가의 주체성 지향 혹은 전략적 대응으로 읽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들이 쉽게 확인된다. 작중 인물들이 "'작용-반작용'의 구도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모호하고 모순적"[5]이라거나 남성상에 있어 증오와 의존의 양가적 성향을 갖는다[6]는 해석은 이 의존성과 자신 없음에 대한 지적들이다.

요컨대 김명순이 악의적인 말과 글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면서도 그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그 말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전유와 배치를 고민했다. 동시에 다른 한편의 김명순은 '사랑' 같은 말에 대해서는 집착에 가까운 미련을 보이며 쉽사리 거리를 두지 못했다. 김명순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양가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김명순 문학이 가진 또 다른 자전성인 기독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김명순 문학의 자전성은 기생 출신 첩 어머

4 1915년 『매일신보』, 「동경에 유학하는 여학생의 隱迹」(1915.7.15., 8.5, 8.13), 1924년 김기진이 쓴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신여성』, 1924.11), 1927년 『개벽』의 「은파리」, 1939년 김동인이 쓴 「김연실전」(『문장』, 1939)이 대표적이다. 김명순에 대한 미디어 폭력의 주 내용물은 김명순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 첩'이며 김명순이 어머니의 '나쁜 피'를 물려받아 음란했다는 것이었다. 김명순은 자신을 둘러싼 헛소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게재가 거부되었지만 김기진의 공개장에 대해 「김기진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라는 글을 『신여성』에 제출했고, 『개벽』의 편집자 방인근, 차성찬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5 심진경, 「'김명순'이라는 텍스트와 유전(流轉)하는 여성주체」,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44쪽.

6 김남석, 「김명순 희곡에 구현된 남성의 양가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53쪽.

니의 딸이라는 정체성과 성폭행 및 2차 가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을 뿐 생애와 문학 텍스트에 깊이 연관된 기독교라는 항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독교에 주목할 경우 김명순의 자전적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조선일보』, 1924.6.14.~7.15)는 신여성을 향한 관음증과 악소문에 대한 대항 서사에서 나아가 기독교 교육과 언어의 극복이라는 "내부적 혁명"[7]을 그린 소설이 된다.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탄실이는 기독교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 개념을 둘러싼 갈등을 겪는다.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탄실은 회개하지 않는 어머니 산월에게 마귀에 들렸다고 비난하며, 지옥에 갈 어머니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한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산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이 진정 사랑이 될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탄실이의 기도가 이상해지는 대목이다.

> 그는어느새부터 언문으로하늘나라를사모하는,찬미를지이셔 동무들에게주엇다.그가운데는이러한것이잇셧다.
>
> 내가하날나라에,/ 갈길을모르니/ 주여인도하소셔,/ 내어머니가쫏차오드래도/ 쫏차버리지는마시고./ 내가주은혜에/ 아주죠홈을모르니/ 주여그때까지보소셔/ 용셔치못할죄를짓드래도/생명록에쓰지도마시고.
>
> 그때부터,그의마음에는 그를장차알수업는사람을 맨드러내일,이상한 고흔싹이뵈엿다. (…)
>
> 그의이러한긔도가,하교나교회에셔하는모ㅡ든사람의,전례를버셔나셔이상하게된것은 탄실이자신도의식치못하엿다.그는그션생들과생도들이 자긔의긔도가우습다고놀닐때,
>
> 『내가긔도를잘못 햇나부다』 하는분명치안은의심이 이러낫셧다그는, 자긔긔도의,잘,잘못을반셩하고십지도안엇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명예가 더럽혀진 탄실의 고통보다 기독교가 대표해서 약속한 보편적인 사랑에서 산월의 자리가 없다는 당혹감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

7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4회, 『조선일보』, 1924.6.17.

다. 탄실이의 기도가 이상해지는 괴로운 과정과 이상한 기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화를 내는 대목은 김명순 문학의 원초적 장면이라 할 만하다. 주체의 분열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탄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기독교의 정죄와 "이세상 사람이죄-다죄악이 잇다고할것가트면하느님이실지라도 그것을 일테로헤이시지안는편이좃지않"겠냐는 산월의 회개 거부 사이를 큰 혼란과 함께 통과한다. 주목할 부분은 자신의 기도를 장난처럼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성을 내는 탄실의 모습이다. "그는 자기 기도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싶지 않았다."

2.2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과 맹세 불가능성

배제된 자의 고통을 표출하는 김명순의 시에서 반복되는 외로움은 서북 남성 문인들의 고독과 비교할 수 있다. 후자가 민족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헌신을 맹세하는 개인의 외로움[8]이라면, 전자는 폭력적인 배제에 기인한 외로움이다. 김명순 시에서 '가시덩굴' 모티프는 또 다른 시어 '저주'와 나란히 맹세할 수 없는 자의 위치, 즉 사랑을 약속한 말씀으로부터 밀려난 자리를 드러낸다. 김명순의 화자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저주의 신세'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마음속 가시 혹은 가시덩쿨이다. 「분신」, 「외로움의 부름」, 「언니의 생각」, 「추억」, 「그러면가리가」, 「咀呪된노래」에서 등장하는 가시덩쿨은 '파랑새'를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열매(과실, 임금, 능금)와 대비되는 것, 독기, 서러움의 씨가 자란 것이다.

이 글은 김명순의 시 속 가시덩쿨 모티프의 출처가 예수의 비유 설교에서 기인한 것이라 주장한다. 공관복음 세 군데(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모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보통 예수의 설명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설교로 다루어진다. 예수의 비유에

8 오스틴은 수행문(performatives) 동사에 대해 그것을 발화하는 주어는 언제나 일인칭(I)이라는 주술관계의 비대칭성을 말한 바 있다. "오직 그만이 그의 내기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J.L 오스틴,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89쪽) 이해받기 어려운 외로운 선도자의 맹세는 문법적으로 고독한 셈이다. 서북 남성 문인들의 공동체를 위한 맹세와 개인의 고독에 대해서는 정주아, 앞의 글, 169쪽 참조.

서 가시덩쿨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의미한다. 첫 번째 창작집의 제목인 '생명의 과실'과 머리말 구절("이 단편집을 오해받아온 젊은 생명의 고통과 비탄과 저주의 여름(열매)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다.

『생명의 과실』에 실린 작품들은 말씀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 형질이 변해 피어난 말의 열매(문학)이다. 조선의 민중들을 위해 언젠가 올 승리의 날을 노래하며 "곱게 참아 겟세마네를 넘으면 극락의 문은 자유로" 열릴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귀여운 내 수리」), "먼 곳서 표류하는 내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의 고백(「외로움의 부름」), 돌베개와 댑싸리 나무가 등장하여 야곱의 꿈과 엘리야의 꿈을 연상시키는 환상(「탄실의 초몽」), 창세기의 인류 타락 이야기를 환기하는 신의 목소리와 신을 향해 항변하는 목소리의 혼재(「들리는 소리들」) '참사랑'에 기초한 예술인 "새 진리가 저를 살린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예술에 대한 신앙고백(「계통없는 소식의 일절」) 등은 모두 기독교 언어의 재활용 사례들이다.

김명순의 예수 인용에 관해 추가로 살펴볼 점은 두 번째 창작집 『애인의 선물』의 표지에 대한 것이다. 이 창작집의 표지 그림은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뒷모습이다. 그 앞에는 독특한 문양의 항아리가 있다.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 항아리, '애인의 선물'이라는 세 요소는 4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9]를 연상시킨다. 『애인의 선물』 표지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수의 부재이다. 여인에게는 발을 닦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인 향유를 부을 대상이 없다. 『애인의 선물』에 실린 시들이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미지를 예수와 향유 옥합 여인 이야기의 변주로 읽는 것을 뒷받침한다.

3 '지극히 작은 자'와 공동체

3.1 선지자 어조 전유하기

맹세 불가능성에 직면한 후에도 계속된 김명순의 글쓰기는 기독교 언어가 가진

9 마태복음 26:6-13, 마가복음 14:3-9, 누가복음 7:36-50, 요한복음 12:1-8.

긍정성을 전유해 공동체와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자 했다. 이때 예수의 말이 다시 참조된다. 김명순은 예수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사유하고자 했다. 김명순은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의식하면서 성서의 선지자적 목소리로부터 조선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다. 김명순은 핍박받는 선지자나 예수의 상황을 자신의 문학 주체와 겹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과 자신의 문학을 가까이 놓는다.

신비로운 꿈 이야기인 「初夢」에서 화자는 박해받던 구약 선지자 엘리야를 환기하면서 상위의 목소리로부터 자신이 예술가적 소명을 받았음을 말한다. 소설 「나는 사랑한다」의 영옥과 「봄네거리에 서서」의 화자 같은 여성 인물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약한 자, 작은 자인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요청한다. 성서에서 누더기 같은 거칠고 낡은 옷은 공동체를 향한 애통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복장이다. 김명순의 선지자 어조 전유가 가장 잘 나타난 경우는 두 편의 수필(「경면독어」, 「네自身의우헤」)이다. 두 글은 모두 정체불명의 화자의 목소리를 내세워 자기 자신(탄실)과 조선을 2인칭으로 부르며 회개를 촉구한다.

> 오오 그러나 그러나 조선아 조션아 이제한번은 삶혀보라, 이제한번은 헤아려보라 나와 네가얼만한 사나운리해력(理解力)만을품고 사라왓나! 오오 지금것우리들에게는 미덤이란참으로거짓말이엿다. 정말잇지도안은말이엿다. (…)
>
> 탄실아 이제한번은 단지너를위하야 이러나보자, 모든 것을이저바리고 모든인정을 물니치고, 이제다시 이러나자,[10]

선지자적인 예술가는 종말의 때를 보고 말하는 선지자적 비전을 보여주기도 한다. 「幻想」은 "새로운 봄"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의 시이다. 이 시는 여인은 낳지 않고 남인은 기르지 않는 세상, 선악과 미추 구분이 없어진 세상을 노래한다. 새로운 봄이 이끼와 돌로 빚은 사람에 의해 도래한다는 것은 김명순의 예술이 유미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정의의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보여

10 김명순, 「네自身의우헤」, 『생명의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76-77쪽.

준다.

3.2 나라와 도적: 불가능한 공동체, 가능한 생활

「도라다볼째」는 김명순의 대표작이자 두 편의 완결된 형태로 남아있는 소설이다. 연재본은 1924년 3월부터 4월까지 『조선일보』에 발표되어 주인공 소련의 자살로 끝나고, 개고본은 다음 해 4월 『생명의 과실』에 실려 사랑하는 대상인 효순의 강연을 보러 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희망적인 분위기로 끝난다. 신여성과 남성 지식인의 사랑이 구습과 악소문에 막혀 실패하는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에서 다시 읽어야 할 것은 연애 서사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약자의 사유이다.

두 편의 「도라다볼째」를 비교해 읽을 때 '신여성-남성 지식인의 연애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긍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유의해서 읽을 부분은 두 작품 중반부 소련의 내적 깨달음으로 삽입된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소련은 다소 뜬금없이 '도적'과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와 공동체, 약자와 강자에 대한 사유를 펼친다.

> [연재본] 우리는 거긔서 서로헤여짐이 업는나라를짓고나라를깨트리지 안을 경우를지으려한다. 하나 우리는 매일이가티헤여지며 변하는 동안에 나라를 깨트리지안키 위하야서, 경우를 깨트려 동셔에서불으지즈며 올(울)째가 잇고, 경우를 짓느라고, 우리의 나라를 니즌 듯이 경우만을 생각할째가잇다. 도젹가티. 하나 도젹은 사람에게만 잇다. 하나 사람은 도젹을 누가 맨드럿는지 몰은단말이다. (…) 사람들의사는세상에는가는곳마다어울니지 안음이잇고 도젹질이잇다. 결국은 희망이 사람들을 속이여서 사람들은 쌍우에텬국을일우지못하고 죄만쌋는 것이다.[11]
>
> [개고본] 우리는 거긔서 서로헤여짐이업는 나라를 짓고 나라를 깨트리

11 김명순, 「도라다볼째」 6-7회, 『조선일보』, 1924.4.4.-4.5.

지안을 경우를 지으려한다. 하나 우리는매일가티 헤여지며 맛나는 동안에 매일가티변함을본다. 필경 육신과 령혼을 양편으로가진사람들은 약함을끗끗내 이기진못하고 운명에게 틈을엿보여서 나라를 깨트리기도 하고 경우를일키도해서 동서에울고 웃게되며 남북을 헤매이게되는 것이다.[12]

소련은 그가 사모하는 효순과 그의 구여성 아내 은순의 삼각관계 한가운데에서 헤어짐이 없는 '나라'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도적'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소련은 효순과의 사랑이 불가능한 상황에 마음을 아파하기 이전에 자신이 은순에게 '도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소련이 사용하는 나라와 도적이라는 용어는 예수의 용어이기도 했다. 예수는 나라('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땅의 침범(도적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13]

「도라다볼째」는 예수의 말을 땅에 사는 여인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말하고자 하는 소설이다. 헤어짐이 없기는커녕 헤어짐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도리어 나라를 깨뜨린다는 것이 식민지 시기 신여성이 파악한 현실이다. 제목인 '돌아다 볼 때'는 자기 자신 역시 그러한 현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신도 도적이 되는 조건에 대한 돌아봄을 가리킨다. 이때 강한 자들은 자신의 도적됨을 돌아보지 못하고 힘이 주는 넉넉함으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간다. 강하다면 "자긔가도젹인 것을 도라다볼겨를도업시"[14] 살 수 있다.

---

12 김명순, 「도라다볼째」, 『생명의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143-144쪽.

13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장 19-21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장 10절)

14 "강한사람들은 자긔가도젹인 것을 도라볼겨를도업시, 흔히도젹들이 강도무리와 마젹단을 짓는것과 가튼일톄로 한집을지어서 세상사람들의 형셰에대하야 지지안이하리만큼 설비를 차리려한다고한다." 김명순, 「도라다볼째」 7회, 『조선일보』, 1924.4.5.

연재본「도라다볼째」의 소련은 자신의 약함을 공동체의 조건을 돌아다 보는 계기로 삼고, 자신보다 더 약한 여인들에게 시선을 보낸다. 연재본「도라다볼째」는 김명순이 자신의 의심을 자기 유폐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개고본「도라다볼째」는 공동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을 이기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몰이해와 수난으로 결국 자살하는 연재본의 엄소련과 달리 개고본의 류소련은 "그렇든지 말든지" "힘써서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준다. 소련은 사랑 없는 강제결혼 생활 속에서 "그렇든지 말든지", 심지어 사모하는 효순과의 만남이 성사되든 되지 않든 "그렇든지 말든지"하는 태도를 획득한다. 다음은 개고본의 마지막 부분이다.

> 소련이 이밤이새인이날에 그회당까지가서 효순의 강연을 드를것과 감동할 것은 당연한일이고 또 그럿튼지말든지 영원한생명에 어울너, 샘물이흐르듯이 신션하게사라나갈 것은 떳떠 하겟다 보증된다.
>
> 그는이날이새여서도 최병셔의집인 그의집에서 모든생명을거누고 내노흘 것이다. 누가그집에참주인인지 누가모르랴.
>
> 집주인은 건실하고 온화하고 공경될 것이다.
>
> 그리고 힘써서『때』를긔다리는 것은 생활해나가는 사람의본능(本能)이라겟다.
>
> 그들의 세상에는 은순이가업고 병셔가업고 애덕녀사도업슬것이 당연할일이다.[15]

위 인용에서 소련의 태도는 아감벤 읽은 바울의 종말론적 태도와 나란히 읽을 수 있다. 아감벤은 바울의 서신(〈고린도전서〉)으로부터 메시아적 삶의 공식이란 '~이 아닌 것처럼', '~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16] 아감벤이 보

15 김명순,「도라다볼째」,『생명의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150-151쪽.

16 아감벤은 고린도전서 7장 29-31절(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

기에 바울의 종말론적 태도는 새로운 대안을 활성화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비활성화하는 힘을 품은 태도이다. 즉 종말론적 태도란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행을 전제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활성화되는 시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개고본 「도라다볼째」의 마지막 문장에서 소련을 괴롭게 했던 세상은 사라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들의 세상에는 은순이가 없고 병서가 없고 애덕여사도 없을 것이 당연할 일이다."

개고본 「도라다볼째」는 탄실이의 분열을 초래한 믿고 싶은 마음이 도달한 최대치를 보여준다. 믿고 싶은 마음이 부정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현실을 감사히 이기는 경지에 이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지평에서는 믿고 싶은 마음의 의타성이 더이상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가 이미 임한 듯하게, 혹은 임박한 듯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는지 오지 않는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모습과 메시아처럼 사는 모습이 구별되지 않을 때 의타성과 자립은 크게 다르지 않다.

4 성스러움의 여성형 욕망하기

김명순 문학은 자신의 현실과 일치하는 평안한 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언어로부터 탄실이가 잊지 않은 것은 말이 현실과 일치할 때 주는 평안이었다. 그렇기에 김명순 문학 속 '어머니'가 현실의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주목된다. 김명순은 "어머니의 영광"(「鄕愁」, 『동명』, 1923.1.1.)을 노래하는데, 중요한 점은 김명순이 어머니를 부르고 그릴 때 언제나 '어머니의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김명순 문학의 초기부터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말 찾기는 성스러움의 여성형을 구축하기 위한 문학적 욕망이자 실천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예컨대 「祖母의

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에서 메시아적 삶의 공식을 추출한다. 아감벤은 바울이 '슬픔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이라고 말하지 않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메시아적 삶이란 A 현실에서 B 현실로의 이행이 아니라 A 현실에서 A 현실의 비활성화 능력에 달려있다. 조르조 아감벤, 강승훈 역, 『남겨진 시간』, 코나투스, 2008, 47쪽.

墓前에」(『여자계』 4호, 1920.3) 속 '개신교인' 춘채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말투와 표현으로 죽은 할머니에게 기도한다. 「英姬의一生」(『여자계』 5호, 1920.6)에는 "자연의 마리아의 품"에서 자연을 묘사할 구절들을 생각하는 여성 예술가 영희의 모습이 그려진다. 두 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 공통된 점은 그들의 예술이 상징과 표현을 선택할 때, 여성형을 고른다는 사실과 그 주위 목소리의 화자들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英姬의一生」에서 여성의 말로 예술하는 예술가는 호의 가득한 여성들의 동행을 받는다.

김명순이 성스러움의 여성형을 욕망할 때 발견되는 흥미로운 패턴은 어머니로부터 말을 요청하는 포즈의 반복이다. 그의 문학적 분신들은 할머니나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기억하고 더욱 많은 이야기를 조른다.

어머니는 말하다/ 자지안는 아해야 무엇을 깁버하나냐.
오오어머니/ 내빗이/ 왼세상을 빗치여요.
흐흐 그애가/ 잠은 안자고/ 재롱만피나냐.
어머니 옛말하시오/ 한옛적에도/ 나가튼이가 잇섯소
아아 니야기가업다/ 내쌀에게 저녁마다/ 말주머니를 털니워서.
—〈재롱〉 전문[17]

「재롱」이라는 짧은 시는 어머니와 아이의 다정한 일상을 그린 스케치처럼 보인다. 잠을 자지 않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옛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고 어머니는 아이의 재롱에 즐거워한다. 그러나 이 시 속 이미지에는 일상 밖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의 말이 그것이다. "오오 어머니 내 빛이 온 세상을 비쳐요". 1922년 『개벽』에 실린 원본에는 "내 빛" 대신 "나의光明"이라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광명'에는 과장된 '빛'으로 밝은 미래, 희망을 상징하는 빛 외에도 부처나 보살의 몸에서 나는 빛이라는 불교적 용례가 있다. 즉 어머니의 아이에게는 후광 같은 것이 걸려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이라면 바로 환

17 「재롱」과 「옛날의 노래」의 원본과 개고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작품 모두 개고본을 인용했다. 김명순, 「재롱」, 『생명의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28-29쪽.

기되는 이미지가 있다. 이 시가 단순히 일상화가 아니라면, 이 시는 성모와 아기 예수 이미지(성모자상)를 환기한다.

「재롱」을 이렇게 읽으면 이 시는 의도적인 반전을 가진 시가 된다. 읽는 사람이 2연의 아이의 말에서 성모와 아기 예수를 연상했다면, 마지막 연에 이르러 이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앞의 행들에서 아이를 부르는 호칭들인 "아해"와 "그 애"는 "내 딸"이라는 지칭의 효과를 위해 일부러 앞에 배치되어 있다. 시의 독자는 어머니와 빛이 나는 아이가 같이 있는 모습에서 풍기는 종교적 분위기의 성(性)이 여성과 여성(모녀관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의 이미지가 성모자상이었다면 아이가 어머니에게 묻는 말인 "한 옛적에도 나 같은 이가 있었소?"는 답은 '없다'일 것이다. 따라서 그 질문은 신의 유일한 아들이 가진 절대성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질문자가 딸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이 질문은 질문 자체의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진다. 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었냐는 딸의 질문은 질문이 밤마다 반복되었다는 맥락적 암시와 더이상 "이야기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딸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무수히 많았다는 읽기로 이어진다. 딸의 빛은 유일무이함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다. 이처럼 「재롱」은 기독교가 점유하고 있던 자애로운 어머니와 성스러운 아이(아들)라는 이미지를 전유하며 성(聖)의 젠더를 교란하고 다양화하려는 시로 읽힌다.

「재롱」 속 아이는 어머니에게 옛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주머니"가 아이에 의해 털린다고 푸념한다. 어머니의 말 받기는 「옛날의 노래」(『개벽』, 1922.9, 『생명의 과실』 개고 재수록), 「鄕愁」에 더 고양되어 나타난다. 「옛날의 노래」는 민요 '타박네 타령'을 반복하며 어머니의 부재를 애도한다. 특히 「옛날의 노래」는 어머니의 말의 부재를 애도한다. 이 시는 "우리 엄마 말이 없다"라는 '타박네 타령'의 한 장면을 확대한다. 어머니가 말이 없다는 말의 반복은 오히려 어머니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드러낸다. 말의 부재에 대한 탄식의 반복은 귀 기울임을 행동으로서 가시화하면서 말의 임재를 요청한다.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남은 노래에 대한 노래인 이 시에서 반쪽짜리 멜로디와 멜로디만 남았다는 탄식은 실어증이 아니라, 말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어머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기다리는 포즈이다.

기도의 끝이 침묵인 것처럼("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상〉 3장 10절) 탄실이의 이상한 기도는 어머니의 말을 요청하며 자신의 말을 정리하는 데에 도착한다. 「鄕愁」가 "고요"를 노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화자는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고요할 것을 명령하면서("어머님爲해 또그아이爲해 고요하라") 고요함을 가진다면 "아몰(아모르)도 다시 내 가슴에 군림하시고/ 꿈여름(꿈열매)도 내 손에 둥글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 고요 가운데 딸은 어머니가 흔드는 "꿈나무" 아래에서 "꿈열매"를 받는다. 지금까지 보았듯 김명순 문학에서 열매는 말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김명순의 필명이자 아명이었던 '탄실(彈實)'에 다시금 주목해볼 수 있다. 彈과 實에는 모두 열매라는 뜻이 있다. 김명순은 자신의 아명을 화두 삼아 맹세와 의심의 말들을 거쳐 자기 말의 근원을 찾기 위한 여정을 펼친 것인지 모른다.

5 결론

본고는 김명순 문학에 나타난 성서 인용과 변주 사례를 통해 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열상을 밝히고, 이를 기독교 언어를 거쳐 자기 언어를 찾는 작가 되기의 과정으로 읽었다. 의심과 미련이라는 양가적 태도 및 내용과 형식의 변주에서 김명순 문학은 여성 작가의 기독교 언어 전유를 깊고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 작가의 기독교 언어에 대한 반응과 재활용 연구는 다른 시대, 다른 작가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 승려로 생을 마친 김일엽, 어려서부터 찬미책과 성경을 줄줄 읽고 꿈에서 목사가 주는 약을 먹고 중병이 낫는 체험을 했던 박화성, 『상록수』 채용신의 모델이 된 '기도의 사람' 최용신과 동창생(원산 루씨여학교) 이었지만 "허영과 향락"[18]을 누리자던 이선희 등은 모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19]를 거부했던 이들이었다. 성경 속 인물, 장면들로 쓴 90여 편의 성경시와 110편의 신앙시를 담은 『주의 승리』

18 이선희, 「만문 다당여인(漫文 茶堂女人)」, 『별건곤』 제69호, 1934.1, 개벽사, 34쪽.

19 〈디모데후서〉 3장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933)을 쓴 장정심, 『밀림』(1937), 『찔레꽃』(1937)을 쓴 한국기독교 최초 여성 장로 김말봉 같은 작가도 있다. 남성 문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 문인들의 글에 기독교는 신여성 담론, 사회주의, 모더니즘 등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수사적 장식 이상으로 남아있다.

기독교와 근대 여성이라는 두 항 사이에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따져보아야 했던 필연적인 영역이 있었다. 여성 작가들의 기독교 읽기를 되짚는 작업은 사랑과 구원과 이상적 공동체의 약속을 핵심으로 하는 말들과 이 주어진 말들에 위화감을 느끼고 바꾸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긴장을 따라가는 읽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명순, 『생명의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이선희, 「만문 다당여인(漫文 茶堂女人)」, 『별건곤』 제69호, 개벽사, 1934.1, 34쪽.

단행본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2014. 169쪽, 206쪽.

조르조 아감벤, 강승훈 역, 『남겨진 시간』, 코나투스, 2008. 47쪽.

존 오스틴,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89쪽.

논문

강동호, 「한국 근대문학과 세속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6. 6쪽.

김남석, 「김명순 희곡에 구현된 남성의 양가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1-55쪽.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

2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67-96쪽.
이경수, 「근대 초기 여성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표상-나혜석·김명순·김일엽의 시에 나타난 종교성과 여성성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3, 한국비평문학회, 2009. 293-318쪽.
심진경, 「'김명순'이라는 텍스트와 유전(流轉)하는 여성주체」,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31-255쪽.